

# 다니엘서 - 번호 백오십구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천사의 세 번의 손길을 드러내다: 예언적 계시

Jeff Pippenger

2024-03-26

10장에서 다니엘은 세 번 접촉을 받는데, 그 세 번의 접촉은 다니엘이 친히 "마레"(mareh), 곧 이상을 세 번 경험하는 것에 상응한다. 첫 번째와 마지막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자인 가브리엘의 것이었다. 가브리엘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선지자에게 전하며,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이 일들에 관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외에는 없느니라. 다니엘 10:21.

가브리엘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자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되, 그리하지 말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10.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하는 자는 가브리엘이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과 관련하여 자신보다 위에 있는 이는 없다고 밝히는 이유가 특정한 예언적 목적을 지닌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한다고 밝힐 때, 그는 그리스도를 '너희의 군주 미가엘'로 지목한다. 그러나 미가엘은 군주일 뿐만 아니라, 그는 대천사이다.

그러나 대천사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논쟁할 때, 감히 그에 대하여 모욕적인 비난을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하고 말했다. 유다서 7절.

그러므로 그 세 번의 접촉은 모두 천사의 접촉이며,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경험한 세 번 모두 그 환상은 천사적이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접촉을 받은 것은 그의 힘을 복돋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전에 두 번째 접촉에서 그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때 다시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와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르되,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강건하라, 참으로 강건하라. 그가 이 말을 내게 하자 내가 강하게 되어 말하였다.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내가 네게 온 까닭을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 하노라. 내가 나아가면, 보라,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다니엘 10:18-20.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임할 일을" 다니엘로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다니엘에게 상기시킨다. 마지막 날들에 대하여 그가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것과

일치하게, 가브리엘은 이어서 자신이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보라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열한 장의 예언적 서술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들에 십사만 사천에게 임하는 일을 묘사한다. 그 예언적 서술은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와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키루스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 사이의 실제 역사는 200년이 넘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에서 마지막 전개는 급속히 이루어지며, 거짓된 북방의 왕이 여섯째 왕국을 정복하자마자, 그리스로 대표되는 일곱째 왕국, 곧 열 왕들이 즉시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넘기기로 동의한다.

한 차원에서 “마레”(mareh) 환상은 다니엘 10장에서 일곱 번 사용된다. 우리는 그 일곱 번 가운데 네 번을 살펴보았으며, 첫 번째 언급은 고레스 제삼년 이전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다니엘이 밝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세 번의 언급에서 각 환상마다의 세 번의 접촉은 다니엘이 이십일간의 슬픔에서 깨어나는 체험을 드러낸다. 그의 부흥의 각성은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 과정 위에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세 단계는 천사들로 표상되지만, 둘째 단계는 대천사 미가엘이니, 그는 모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하늘로 옮기신 분이시다.

열째 장에서 “vi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나머지 세 번은 “mareh”가 아니라 “marah”이다. “Marah”는 “mareh”의 여성형이다. 그것은 환상을 뜻하며, 사역형으로는 “거울” 혹은 “looking-glass”를 뜻한다. 그 정의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것이 “사역형”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그 모양”의 환상이지만, 성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예언적 기별을 식별하게 한다. 그 정의에서 “거울”은 그 환상을 보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반영을 본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이 바로 그 단어에서 “사역형”인 요소이다. “Marah”의 문맥에서 사역형 단어의 정의는 심오하다.

“사동”이라는 용어는 인과관계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언어학, 특히 동사 형태론에서 사동형은 동사의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그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구성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동사 “to read”는 “to make someone read”라고 말할 때 사동이 된다. 이때 주어는 다른 사람에게 읽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역형은 주어가 동사가 묘사하는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주체임을 나타낸다. “사역”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나도록 유발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다니엘이 히브리어 단어 “marah”를 사용한 세 경우 모두에서, 바라보는 환상은 그것을 보는 자를 그가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첫째 달 이십사일째,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같은 모양(mareh)이며, 그의 눈은 불의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은 빛깔이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나 다니엘만 이 환상(marah)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marah)을 보지 못하고,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남아 이 큰 환상(marah)을 보았고, 내게는 기력이 남지 않았으니, 내 곱던 빛이 변하여 내 속에서 썩음이 되었고, 나는 힘을 간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졌더라. 다니엘 10:4-9.

마지막 날들에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어 있는 3일 반과 일치하는 애통의 21일이 끝날 때, 다니엘은 갑자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었고, 그의 모양은 "번개의 모양(mareh)과 같았다." 그 사건은 요한계시록 11장의 3일 반이 끝날 때 분리를 일으키는데, 이는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환상(marah)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몸을 숨기려고 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marah)을 [보]게 하심을 받[지] 못했고,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다".

다니엘이 홀로 있을 때 본 환상은 여성적이며 사동적인 환상이었고, 그 환상은 다니엘을 환상의 형상으로 변화시켰다. 이 변화는 다니엘의 인간적인 힘이 제거되고 그의 아름다움이 부패로 바뀜으로써 이루어졌다.

영혼이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을 통해 활동하는 바로 그 육체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기계의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할 권리가 없다. 살아 있는 유기체의 모든 부분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 자신의 신체라는 유기체에 대한 지식은 모든 지체가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 하늘의 뜰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씻고, 나 자신을 속량한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송축과 찬양이 있으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며,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알지 않으려 한다. 복음의 전부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데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낮추시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다." Testimonies to Ministers, 456.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게 된 그 환상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한 '사역적' 여성형의 환상이었고, 다니엘의 자기 의가 티끌에 엎드려진 직후 세 차례의 천사적 손길이 임하여 결국 다니엘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다.

1888년에 존스와 왜그너 장로들이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과 함께 그 능한 천사가 강림했다. 그 동일한 천사가 2001년 9월 11일에 다시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가지고 강림했다. 그것은 14만 4천의 인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14만 4천의 인침이 마칠 때, 처음의 기별이 반복되는데,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1840년 8월 11일, 바로 그 동일한 천사가 강림하여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성취된 세 단계를 시작했다. 그 세 단계는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의 권능이 부여됨으로 시작되어, 1844년 4월 19일 둘째 천사의 강림,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강림으로

이어졌다. 그 역사는 2001년 9월 11일 세 천사 중 첫째의 강림을 예표했으며, 이어서 2020년 7월 18일의 실망 때 둘째 천사가 뒤따랐고, 머지않아 올 일요일 법령 때 셋째 천사의 강림으로 마무리된다.

그 역사의 끝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거리에서 사흘 반 동안의 죽음 뒤에 미가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시키러 강림할 때, 또 다니엘의 21일간의 애통으로도 표상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 주시는데, 그 환상은 사람의 영광을 티끌 속에 앞드리게 하고 분리를 일으킨다. 다니엘이 티끌에 앞드리고 그 '원인적' 여성적 환상을 바라봄으로써 변화된 후, 가브리엘이 처음으로 그를 만져 떨리는 다리로 서게 한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키러' 내려와 다니엘을 두 번째로 만지니, 자신이 실제로 주님과 말씀하고 있었다는 현실에 압도된 그는 기력을 잃는다. 이어 가브리엘이 와서 그를 세 번째로 만지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기치로 서는 사역을 하도록 그를 강하게 한다. 그 세 번의 손길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상징하지만, 이 일은 단 하루 안에 일어난다.

첫째 천사의 경험에는 그리스도께서 번개처럼 나타나시는 모습, 분리를 야기하는 '인과적' 환상, 그리고 다니엘을 그의 인간적 영광의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접촉이 포함된다. 첫째 천사는 첫째가 포함하는 세 단계 모두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접촉이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앞드린 채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한 손이 나를 만져 무릎과 손바닥을 짚게 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말하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제 내가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 말을 내게 할 때에 나는 떨며 섰다. 다니엘 10:9-11.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신 두 번째 손길을 받은 경험은 말하지 못하던 다니엘을 그의 주님과 말할 수 있게 변화시킨다. 두 번째 손길을 받을 때 다니엘에게는 숨이 없었으므로, 그는 여기서 에스겔 37장의 첫 번째 메시지가 가리키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가 이러한 말씀을 내게 하셨을 때, 나는 얼굴을 땅을 향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보라, 사람의 모습과 같은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 내가 입을 열어 말하여 내 앞에 서 있는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이 나를 덮쳐 내게 기력이 남지 않았나이다. 주님의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말할 수 있겠나이까? 저는 곧바로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고 내 안에 호흡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10:15-17.

에스겔의 두 번째 메시지에서도, 사방의 바람에서 온 전언이 뼈들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살아나 강대한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 그 군대에 대한 권능 부여는 세 번째 손길로 나타난다.

그때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어 나를 강하게 하며 이르되,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강건하라, 참으로 강건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매 내가 힘을 얻고 이르되, 내 주께서 말씀하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또 이르되, 내가 네게 온 까닭을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뒤에 보라, 헬라의 군주가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이 일에 나와 함께 서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외에는 없느니라. 또 나,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의 첫해에 서서 그를 굳게 하며 강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는 아직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 모두보다 훨씬 부요하겠고, 그의 재물로 인하여 얻은 그의 힘으로 그는 모든 자들을 일으켜 헬라 나라를 치게 하리라. 다니엘 10:18-11:2.

에스겔 37장에서 두 증인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기별은 셋째 화의 이슬람의 기별이지만, 거듭되는 교훈 속에서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모세를 일으켜 세워 기치로 삼아 하늘로 데려 올리는 예증 가운데서 밝히는 기별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의 기별이다. 그것은 2020년에 죽임을 당한 여섯째 대통령(공화당의 뿔)의 기별이며, 참된 프로테스탄트의 뿔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였었다. 다니엘의 서사에서는 참된 프로테스탄트의 뿔을 위한 애곡의 날들로부터의 부활이 공화당의 뿔의 부활을 식별하는 데로 인도하였다.

다니엘 10장에서는 “환상” 또는 “모양”이라는 말이 일곱 번 사용된다. 그 일곱 번의 언급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식별되는데, 다만 그 가운데 세 번은 그 단어가 여성형으로, 나머지 네 번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다. 일곱은 완전수이며, 일곱을 이루는 삼-사의 결합은 요한계시록의 주된 특징인데, 거기에서는 일곱 교회 중 마지막 세 교회와, 일곱 인 중 마지막 세 인과, 일곱 나팔 중 마지막 세 나팔이 처음 네 것과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며,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과 요한은 같은 종말의 상징이다. 1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환상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기 위해 돌아선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르디스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1:10, 11.

그것이 다니엘 10장의 세 번의 접촉이든, 요한계시록 1장의 동일한 환상이든, 에스겔 37장의 두 기별이든, 혹은 이사야가 제단 위에서 가져온 핀 숲에 입술이 닿은 일이든, 그 경험은 최후의 경고 기별에 권능이 부여되는 것을 드러내며, 그 기별은 2023년 7월 두 증인의 부활에서 시작된다. 다니엘과 요한과 에스겔과 이사야는 모두 자기 뒤에 있는 “옛적 길들”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곧 “내가 누구를 보내며”라고 묻는 음성을 듣는 한 사자를 표상한다. 그 사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때, 그는 강건하게 되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이 자기의 음성을 높인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앞서 묘사된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당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모든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뒤, 그 예언자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여 다시 하나님께 빛과 지혜를 구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때 나 다니엘은 온전한 세 주 동안 애통하였다. 나는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베 옷을 입고 우바스의 순금 띠로 허리를 동여맨 어떤 사람이 보였다. 그의 몸은 또한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보였으며, 눈은 불꽃과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은 빛깔이었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다니엘 10:2-6).

이 묘사는 그리스도께서 밧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기록한 묘사와 유사하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 주께서는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가르치신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계시하신 위대한 진리들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 진리를 찾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다니엘은 노인이었다. 그의 생애는 이방 궁정의 매혹 한가운데서 흘러갔고, 그의 마음은 거대한 제국의 사무에 얽매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물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였다. 그의 간구에 응답하여 하늘 궁정에서 온 빛이 마지막 때에 살 사람들을 위해 전해졌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열어 주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는가.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도망하여 숨었더라.... 내게는 힘이 전혀 남지 않았으니,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부패로 바뀌었고 나는 힘을 간직하지 못하였음이라'(7, 8절). 진실로 성화된 모든 사람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완전하심을 더 분명히 볼수록,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옳고 아름답게 보이던 것조차 그리스도의 순결과 영광과 대비되면, 합당하지 않고 썩어질 것으로만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흐릿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성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때 가브리엘이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 다니엘이여,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제 내가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 말을 내게 하였을 때, 나는 떨며 일어섰다.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고자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첫 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1, 12절)

하늘의 존귀하신 분께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영예를 베푸시는가! 그분은 떨고 있는 그분의 종을 위로하시고 그의 기도가 하늘에서 들으심을 받았다고 확신시켜 주신다. 그 간절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세 주 동안 그 왕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저항했으나, 하늘의 왕자요 대천사인 미가엘이 보내심을 받아

완고한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그가 이 같은 말을 내게 하였을 때 나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졌고.... 이르되,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참으로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매 내가 힘을 얻고 이르되,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5-19절).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커서 그는 그 광경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하늘의 사자는 자신의 임재의 광채를 가리고 선지자에게 '사람의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자'로 나타났다(16절). 그는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이 성실하고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헌신적인 종이였다. 그의 긴 생애는 주님을 위한 고귀한 봉사로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품성의 순결과 변함없는 충성은 오직 그의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에 필적할 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의 생애는 참된 성화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범이다. 성화된 생애, 49-52.